

구광모, 美·APEC 넘나든 현장경영 글로벌 무대에서 LG 미래 직접 챙긴다

美 플로리다서 트럼프 등 재계 교류 귀국 후 계열사 릴레이 보고회 주재
경주 APEC서 주요국 기업인과 회동
LG전자·생활건강, APEC 홍보 앞장
한국시리즈 현장서 선수단 직접 격려

구광모 LG 회장이 국내외를 넘나드는 초국경 일정을 소화하며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경영 현안, 스포츠 무대, 국제무대까지 오가며 그룹의 미래 방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29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10월 중순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가들과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정·재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골프 회동 행사에 한국 기업인 대표로 참석, 글로벌 인사들과 교류했다.

플로리다 일정 후 곧바로 귀국한 구 회장은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릴레이로 진행되는 LG그룹 사업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각 계열사의 내년도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구조적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구 회장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업보고회 일정속에서도 APEC 주요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구 회장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씨밋 개최식을 시작으로 APEC 일정에 돌입했다. 같은 날 정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연설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이후 이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 있는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방문해 에어컨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LG

진 리셉션에도 참석, 러트닉 장관을 비롯한 미국 기업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오는 31일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APEC 갈라디너에 참석해 APEC 주요국가 정상 및 글로벌 경제인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20년만에 한국에서 치뤄지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했다. LG는 지난 9월 30일부터 경주 시내버스 70대에 APEC을 알리는 래핑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가운데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LG전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조성된 500평 규모의 에어돔 부스에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로 조성한 초대형 상들리에를 선보였다. 상들리에에는 77인치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가 조명을 등글게 감싼 형태

로 조성됐다. 이 외에도 모터·컴프레서 등 'AI 코어테크' 기술을 적용한 세탁기·냉장고의 연출 장면도 선보여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LG생활건강은 오는 3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의 궁중 문화 헤리티지를 체험할 수 있는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APEC에 참가한 각국 정상 및 글로벌 CEO들의 배우자들에게 K-뷰티의 정수를 선보였다.

구 회장은 지난 26일에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경기 현장에 구단주 자격으로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지난 2023년 29년 만의 LG트윈스 우승을 이끈 구 회장은 이날도 팬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 日 홋카이도에 HVAC 테스트 랩 구축 (냉난방공조)

극한 환경서 난방 성능 검증
제상·히트펌프 기술 강화

삼성전자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 '삼성 냉난방공조(HVAC) 테스트 랩'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테스트 랩이 위치한 아사히카와는 내륙 분지로 겨울철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 월 누적 적설량이 최대 127cm에 달하는 혹한·강설 지역이다.

삼성전자는 아사히카와 지역의 극한 기후를 활용해 냉난방기의 난방 성능을 좌우하는 '제상 시스템'과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솔루션'의 신뢰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상 시스템은 냉난방기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에 쌓이는 성에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난방 운전 중 응축된 수분이 성에 형태로 열교환기에 응고되면 열교환기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스스로 열교환기의 상태를 확인하

고 적절한 시점에 제상 시스템을 가동해야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성에의 형태를 학습해 최적의 제상 운전 시점을 판단하는 제상 기술로 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인 제품을 한국, 북미와 유럽 등에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HVAC 테스트 랩에서 기술 연구와 실험, 검증을 진행해 더욱 효과적인 제상 성능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거용 히트펌프' 시장 공략을 위해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룰레오 공과대학, 로컬 시협소 등과 협업해 히트펌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HVAC 테스트 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 한층 강력한 성능을 내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 HVAC 테스트 랩은 삼성 일본연구소(SRJ), 홋카이도 대학과의 공동 연구에 참여해 현지 기후와 실거주 환경을 반영한 HVAC 핵심 기술 고도화도 진행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 AI 자율운항 기술로 해양시장 공략

美 해박AI와 해양무인체계 협력

한화가 미국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솔루션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화는 29일 미국의 AI 자율운항 전문기업 해박AI와 해양무인체계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양사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폴 브윈 해박AI 최고경영자(CEO)와 연구진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한화의 합정 건조 및 해양시스템 기술을 점검했다. 이어 하와이 앞바다에 대기 중이던 해박AI의 무인수상정(USV)을 거제 현장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기술 시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양사의 기술 결합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화는 이번 만남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필리핀 소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에 발을 내디딘 데 이어 이번 교류를 통해 자율운항 기술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양사는 한화오션의 합정 건조역량과 한화시스템의 합정전투체계(CMS)·통합기관제어체계(ECS)·합정추진체계 상대기반진단체계(CBMS) 등 시스템 통합 기술에 해박AI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실제 제품 및 솔루션 개발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원관희 기자 wkh@

韓·獨, 일본서 수소차 기술 리더십 격돌

현대차·BMW, 日 모빌리티쇼 참가
현대차, 신형 넥쏘로 기술 과시
내년 상반기 일본 출시 예고

BMW, iX5 하이드로젠 공개
토요타 협업으로 기술 강화

현대자동차와 BMW가 '수입차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수소차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2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열린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 처음 참가해 신형 넥쏘를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일본 시장에 신형 넥쏘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수소 기술 개발 헤리티지와 넥쏘를 일본 시장에 알리며 수소 기술 리더십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날 미디어 발표회에서 '꾸준하고 담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현대차의 수소 기술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또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EV), 인스터로이드를 주제로 전시관을 구분하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대차일본법인(HMJ) 시메기 토시유키 법인장(왼쪽), 현대차 정유석 부사장이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소 존은 연료전지 스택과 함께 신형 넥쏘의 주요 상품성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방문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대차의 수소 개발 관련 이력 및 현대차 수소사업 브랜드 'HTWO'를 소개하는 콘텐츠즈를 전시한다.

이번에 공개된 디올 뉴 넥쏘는 최고출력 150kW를 발휘하는 모터가 탑재돼 0~100km/h부터 100km/h까지 7.8초의 가속성을 갖췄으며, 5분 내외의 짧은 충전 시간으로 국내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720km까지 주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V 존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기술 소개 및 아이오닉5의 글로벌 수상 내역을 소개하는 콘텐츠와

함께 일본 EV 충전 인프라 기업 'e-모빌리티 파워'의 차세대 차데모 1000V 충전기 급속 충전 대응 기술을 소개한다.

현대차는 '인스터로이드 존'에는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와 인스터 크로스를 함께 전시한다. 인스터로이드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에 다채로운 재미 요소를 반영한 프로젝트 모델로 인스터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BMW도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노이어 클라세 모델 '뉴 iX3'과 수소 구동 기술을 탑재한 'iX5 하이드로젠' 등을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비전을 제시했다.

뉴 iX3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와 'BMW 파노라믹 iDrive'를 통해 운전자 중심의 디지털 경험을 구현했다. 또 6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과 원통형 셀 배터리, 새로운 전기 모터 등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주행 성능을 모두 개선했다. 아울러 BMW는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 구동 시스템에 이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추가한 새로운 iX5 하이드로젠을 선보였다. 수소구동 기술은 BMW그룹이 토요타와 함께 개발 중인 3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인터, 저탄소 에너지 전환 속도

에퀴노르와 포항서 MOU 체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에너지 선도기업인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와 해상풍력, 강재공급,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9일 포항 청송대에서 에퀴노르와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해상풍력 공동개발 ▲해상풍력용 강재공급 ▲LNG 조달·공급 등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서 실질 협력 강화 ▲신규 에너지 분야 공동사업 발굴 및 워킹그룹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국영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석유·가스·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산 해역에서 '반딧불이' 부

유식 해상풍력(750MW)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1년 하반기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이후 고정가격 입찰 및 정부·공급의무자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투자 적합성과 금융 조달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지속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스코그룹의 강재·에너지·인프라 역량과 에퀴노르의 글로벌 해상풍력 기술력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태계 조성 and 에너지믹스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에퀴노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연료 등 미래 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